

“부결땀 재발의”... 민주 ‘김건희 특검·채해병 국조’ 쌍끝이 공세

尹 거부권 행사 후 28일 재표결 부결시 다음달 네번째 특검법 발의 국힘, 내분에 이탈표 가능성...우 의장, 여야에 채상병 국조 의견 요청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차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다음 달에 곧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음 달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네 번째로 발의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군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할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수사 대상은 다시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여당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더욱 굳히면서 재의결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판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만큼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기류다.

이 대표의 1심 판결로 민주당이 불리해진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 역시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비방글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커지는 형국 아닌가”라며 “진한(진한동훈) 계가 수세에 몰리면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을 요청하는 등 ‘채상병 국조’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과 함께 소위 ‘쌍끝이 공세’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며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10명도 없다면 ‘양심 불량 의회’”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적극 찬성하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김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등 사유...국민 제보 포함 최종안 작성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혁신당은 재의요구권(거

부권) 남용,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조국 대표는 회견에서 황성신문에 기고한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국을 인용하며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국이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반면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정, 내일 민생경제 점검 회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회의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 민생 대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지나친 제약, 개정 불가피”

이재명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정치신인 진입에 한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헌법비헌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치 행위로 아닌 장정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 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기조 변화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대 정원 ‘평행선’

여의정 협의체, 24일 3차 회의

여의정 협의체는 20일 국회에서 실무회의 성격의 소위원회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 대변인과 이만희 의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나 정부 측과 의료계 측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오는 24일 3차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의료계 단체의 협의체 추가 참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주철현 “檢, 이재명 기소 잦다면 대통령도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같은 잦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를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 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치졸함이 점입가경을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적 취미생활에 불교한 골프장 방문을 위해 최소 7차례 이상 토요일에 관용

차를 이용했으며, 김건희 여사는 제주 은감지 축제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나 홀로’ 이용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기소가 야당 탄압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잦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이 이를 수사하도록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